사무직 여성 90년 겨울 통권 3호

<멋있는 동지>

“ 마른 잎 다시 살아나 ”
- 해고된 현대건설노조 문화부장 김은옥 -

지난 12월 22일, 연세대학에서는 “ 마른 잎 다시 살아나 ”라는 제목으로 현대그룹해고자 복직투쟁기금 마련을 위한 송년행사가 열렸다.

“ 서럽다 뉘 말하는가. 흐르는 강물을 꿈이라 뉘 말하는가. 되살아오는 세월을… 가슴에 맺힌 한들이 일어나 하늘을 보네… ”

현대그룹 해고자 62명 중 사무직여성노동자로서는 최초로 해고된 올해 26세의 현대건설노조 문화부장 김은옥. 그녀는 지난 8개월 간의 처절했던 부당해고 철회투쟁을 되돌아보며, 한편 복직을 향한 의연한 각오를 다지며 소리 높여 노래 불렀다.

“ 마른 잎 다시 살아나 푸른 하늘을 보네. 마른 잎 다시 살아나 이 강산은 푸르러 ”

88년 노조설립과 동시에 서정의 위원장 납치로 세간에 더욱 유명해진 현대건설노조. 재벌그룹 현대는 2년 만에 문화부장인 그녀의 부당해고를 시작으로 4명의 간부와 한 명의 조합원을 더 해고시킴으로써 ‘ 노조탄압 왕국 현대 ’로 그 이름을 떨치고 있다. 그러나 골리앗에 맞선 작은 거인 다윗처럼 그녀는 현대왕국을 향해 복직투쟁을 당당히 선언하였다.

현대그룹 입사를 자랑스러워하던 신입 여직원 ‘ 미스 김 ’

5남매의 막내인 그녀는 어릴 적부터 노래와 율동에 뛰어나 주위의 칭찬을 한 몸에 받으며 자랐다. 유치원 교사가 꿈이었던 그녀는 인문계 혜화여고에 입학했으나 취업반을 선택하였다. 도배공 일용노동자인 아버지가 막내인 그녀를 대학공부 시킨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이다. 대학포기의 현실 앞에서 눈물과 열등감에 괴로웠지만 돈 벌어 야간대학에 가리라는 작은 희망을 안고 취직공부에 전념하였다. 84년 말 현대그룹 여직원 공채에 응시한 그녀는 혜화여고 졸업생 중 유일한 합격자가 되었다. 현대그룹 입사 그 자체는 그간의 갈등과 방황을 모두 씻어낼 수도 있는 큰 위안이자 자부심이었다. 처음 배치된 곳은 해외플랜트사업부. 텔렉스와 일반 사무업무를 하던 신입 여직원 ‘ 미스 김 ’은 회사 일에 야간대학 공부에 팽이처럼 바쁘고 분주한 나날을 보냈다.

처음 몇 년은 일하는 재미에 빠져 즐겁고도 발랄한 그야말로 천진난만한 시절을 보냈다. 아마도 안정적인 대기업에 그것도 당당하게 공채 입사하였다는 자부심과 주위의 부러운 시선은 그녀의 ‘ 일하는 재미 ’를 더해주었으리라. 그녀는 사내에서 레크리에이션 리더를 모집할 때 자원해서 나설 정도로 활발하고 적극적인 회사생활을 하였다.

“ 여사원인가 여사환인가? ”

그러나 그리 ‘ 신나는 인생 ’인 것만은 아니었다. 단지 여자라는 것과 고졸 학력이라는 것 때문에 감수해야 하는 부당함과 차별은 그녀에게 조금씩 세상살이의 만만치 않음을 깨닫게 하였다.

남자보다 한 시간씩 일찍 출근해서 커피 타서 돌리기, 책상 닦기, 군말 없이 해야 하는 잔심부름, 일 년에도 몇 차례씩 있는 어학교육과 교양교육에서의 배제 등이 그것이었다. 도대체 고졸 여직원은 여사원인가 여사환인가? 무엇보다 봐 넘기기 어려운 것은 임금차별이었다. 남직원과는 말할 것도 없었고 전문대졸 여직원의 54%, 대졸여직원의 44%에 불과한 고졸 여직원 임금은 10년 근무해야 겨우 대졸 여직원 초임 수준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임금에 관해서는 여직원들은 부당함을 넘어 폭발 직전의 분노, 그 자체였다.

그녀는 ‘여직원의 상식적인 일’로 치부되던 잡무부터 고쳐나가기로 마음먹었다. 아침마다 타던 커피는 보온병을 비치해 놓고 누구라도 직접 타먹게 하였다.

“여자가 타주는 커피가 더 맛있다” “그런 일도 안 하려면 뭐 하러 회사에 들어왔냐”던 남자 직원들의 빈정거림이 분분했으나 노조 결성 이후부터는 흘러간 옛 노래가 되었다.

노조 문화부장, 새 삶의 지평을 향해

88년 노조설립과 동시에 현대건설 사원 5천여 명 중 3천여 명이 가입하였다. 해외근무 근로자를 제외한 수로 따지면 가입대상자의 80%의 조직률에 가까운 숫자였다. 여직원들은 누적돼 온 차별대우로, 남직원들은 건설업계 특수성인 필요에 따른 고용과 무자비한 감원이라는 불안정한 인력관리 및 수당삭제 등의 문제에 대한 불만을 느끼던 터라 노동조합은 관심 속에 출발하였다.

그녀는 노조 사무실이 근무부서 바로 옆이었기 때문에 자주 드나들며 이일 저일 거든 것이 인연이 되어 문화부장을 맡게 되었다. 다소 우연하기조차 한 문화부장 직책은 그녀에게 새 삶의 기회를 열어준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출근하면서 가식의 탈을 쓰고 근무하고 퇴근해서야 가면을 벗어야 했다”던 그녀는 이제 전혀 다른 삶의 자세와 인간관계를 자각하게 되었다. 청소일, 식당일을 하는 사람으로만 대하던 나이 든 아주머니들이 이젠 우리 조합원, 나의 동지로 보이게 되었다. 점심 먹은 식기 하나, 화장실 휴지 한 조각도 마음대로 버릴 수 없는 자신의 달라진 모습에 새삼 놀라기도 하였다. 그뿐이 아니었다.

결혼 퇴직제가 철폐되어 도둑결혼, 비밀결혼하던 여직원들도 없어졌고 커피 타기와 책상 닦기는 자판기와 용역직원들의 몫이 되었다. 고졸 여직원의 심각한 임금차별은 6년이 되면 진급기회가 부여되어 그 격차가 해소되었다.

자신을 변화시키고 모두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노동조합. 그야말로 그녀의 살맛 나는 새 삶이 시작되었다. 우선 계열사 노조 문화부장들을 만나고, 노동자 문화단체를 방문하면서 문화부장인 자신의 몫도 찾아나갔다. 풍물을 배우고 노동자 문화수련회에 참가해 생산직 노동자들을 만나면서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새삼스러울 것 없는 그러나 그녀에게는 신성함과 충격의 감동마저 던져주는 많은 만남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여자가 왜 설쳐. 설치길”

회사는 운영위원, 대의원 그리고 문화부장으로 동분서주하는 그녀를 소위 ‘위험인물’로 점찍어 놓았다.

“김은옥 씨, 참한 여직원으로 봤는데 왜 그래요?”

특히 단체교섭 보고대회 때 수백 명 조합원 앞에서 노래지도 하며 분위기를 돋우던 그녀는 수시로 중역실로 불려 다니면서 은근한 회유와 협박에 시달렸다. 불려 다니던 횟수가 거듭될수록 그녀의 태도는 당당하였다. 비례해서 회사는 회유에서 노골적인 협박으로 그녀를 조여만 갔다.

“네가 뭔데, 소영웅주의자처럼 행동해. 여자가 왜 설쳐 설치길.”

어처구니없게도 그들의 눈엔 노조간부 김은옥이 아직도 만만한 일개 여직원에 불과하였다.

해고와 조합원 탈퇴작전

89년 노조는 초대위원장이 사퇴한 뒤 다소 불안정한 직무대행 체제로 들어섰고 이를 틈타 회사는 계획적인 노조 탄압을 시작하였다.

그해 12월말 정주영 회장이 ‘사무직에는 노동조합이 필요 없다’는 사무직 노조 불가피론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뒤 노조 약화작전이 집요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게다가 임금인상 시기를 앞두고 현대그룹은 과장급 이상의 임금동결을 발표함과 동시에 그룹사 중 유일하게 과장을 가입 대상자로 하는 현대건설 노조를 대상으로 조합원 탈퇴 종용이 시작된 것이다. 밀어붙이기 몇 개월 만

에 결국 천여 명의 조합원이 탈퇴, 순식간의 회오리바람이 노조를 휩쓸더니 급기야는 89년 말 본인에게는 통고도 하지 않은 채 그녀를 관악공장(현재 현대 중기산업주식회사)으로 인사발령 시켰다. 이에 불복, 이의를 제기하자 90년 3월 7일자로 ‘인사명령에 대한 불복종’으로 그녀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열흘 만에 간단하게 권고사직 시켜버렸다. 다시 한 달 후 징계해고 시키자 그녀는 즉시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하고 첫째, 해고사유가 사실과 다르다. 둘째, 해고절차에 하자가 있다. 셋째, 해고가 터무니없는 중징계라고 주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단체협약상의 상집간부에 대한 인사이동은 사전에 협의한다, 징계위원회는 본인이 직접 참석하여 진술 기회를 준다는 조항은 모두 무시·생략된 것이다.

계동본사 앞의 출근투쟁, 싸움은 이제 시작

법과 노사협약 사항의 단 한 줄도 존중하지 않는 현대그룹을 상대로 한 복직의 기나긴 투쟁이 시작되었다. 해고와 동시에 서울 한복판 현대그룹 본사 계동빌딩 앞에서 부당해고 철회라는 머리띠와 몸벽보를 두르고 호소문을 돌리기 시작했다. “미친 년, 왜 남의 회사에서 떠들어?” 인사과 직원들은 유인물을 모두 빼앗고 사정없이 그녀의 양팔을 비틀고 구타하였다. 세게 때릴수록 커지는 종소리처럼 그녀의 심장에서는 투쟁을 멈출 수 없다는 다짐의 소리가 크게 크게 터져 나왔다. 즉각 전치 3주의 진단서를 첨부해 이들을 폭행으로 고소하였다. 노조에서도 부당해고를 규탄하고 소송비용 및 복직 시까지 노조 사무실 상근, 조합비에서 임금지불 할 것 등을 결의하였다. 그러나 두 달 만에 이를 번복, 그녀를 6월 1일자로 정권시킴과 동시에 해고투쟁을 개인차원에서 전개할 것과 소송비를 자비로 할 것을 통지하였다. 신명 바쳐 일하던 노동조합에서조차 외면당한 순간 그녀는 놀람과 분노로 열흘간 심하게 앓아누웠다. 소나기 오는데 우산도 없이 문 밖으로 내몰린 듯한 참담함에 치를 떨었다.

“현대그룹에서 부당해고와 노조탄압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선례를 남겨야 된다고 다짐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것은 나 개인 문제가 아니라 전체 노동자와 전체 노동조합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녀는 투쟁을 포기하지 않는 것만이 투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가족과 조합원들의 격려로 다시 일어나

노조에서는 외면했으나 건설노련으로 출근하며 재판에 임하였고 한편으로는 뛰어다니며 홍보를 해나갔다. 현대의 24개 계열사에 호소문을 보내고 경인지역 노조는 직접 방문하고 모금해 나갔다.

“여자가 너무 설치니 당연하지” “해고는 순전히 김은옥 개인적인 일”이라는 노조와 회사측의 기막힌 역선전에도 불구하고 몰래 찾아오는 조합원들의 격려 한 마디가 눈물겹도록 고마웠다. 노조활동 초기에는 너무 나서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 시집이나 가라던 가족들도 이젠 적극적인 후원자가 되었다. 다섯 차례의 공판에 나와서 무언의 지지를 보내주신 아버지. 그녀가 어릴 적에는 도배공임을 부끄럽게조차 여겼던 아버지가 이젠 이 땅의 노동자로 자랑스럽게 느껴졌다.

3대 민주집행부의 깃발을 올렸으나

복직투쟁 중에도 그녀는 내부 민주노조추진위 구성원들과 함께 8월 17일 제3대 민주집행부를 탄생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참여하는 조합원, 실천하는 집행부, 살아 움직이는 노동조합.” 꿈속에서도 그리던 민주노조의 깃발은 올렸지만 그 깃발이 펄럭이기도 전에, 새 집행부가 출범하는 9월 1일 이전 단 며칠 사이에 다수 간부가 사전조치를 당하였다. 과연 무소불위의 현대였다. 연말 내 조합원 수를 반으로 축소화 하는 지침을 확정한 후 회사는 그들의 각본대로 폭력과 불법을 연출한 결과 그녀는 일심에 패소, 간부들은 해고, 조합원들은 탈퇴한 것이다. 11월 27일자 “해고무효를 다투는 기간 중에는 조합원 자격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던 바로 다음날 출근하던 해고자들은 30명의 청원

경비와 청원경찰, 인사부 직원에 의해 끌려났고, 다시 12월 3일에는 구사대에 의해 목이 졸리고 구둣발로 얼굴이 짓이겨졌다. 안경알이 깨지고 온몸에 피멍이 들었다. 막강 현대의 폭력 앞에서 대법원 판결은 한 장의 휴지조각이 되는 순간이었다.

“민주노조 우리의 사랑, 투쟁으로 이룬 사랑…” 스크럼을 짜고 도로에 누워버린 간부들의 노래는 바로 현대의 “사무직 노조 불필요론”에 맞선 “사무직노조 불가피론”의 우렁찬 함성이었다.

민주노조는 꿈속에서도 신이 난다

동공확대와 온몸 타박상으로 다시 입원해야 했던 그녀는 그대로 함께 아파하고 함께 투쟁하는 민주노조가 있어 투쟁도 신이 난다. 발랄했던 여직원에서 노래 잘하는 문화부장으로, 그녀는 이제 폭력적 노조탄압의 명수인 현대의 성벽을 강타하는 투사가 되었다. 해고당한 뒤의 무력감과 재취업의 갈등으로 잠시 유약했다던 그녀는 이제는 복직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해고 자체의 부당성, 민주노조의 탄생, 외부의 지원과 격려 그리고 자신의 지칠 줄 모르는 투지가 바로 복직의 확신을 주는 분명한 근거라는 것이다. 퇴원 즉시 밤샘하며 해고자 송년행사를 준비해 온 그녀는 온몸이 펄펄 살아서 분주하다.

해뜨기 직전의 새벽이 가장 춥다던가. 인터뷰를 마치고 송년행사 준비장으로 가는 그녀는 바로 그 동틀 날을 향하여 뛰어가는 이 땅의 당당한 노동자의 모습이었다. 진정 아름다운 여성노동자의 모습이었다.